

콘텐츠 중심도시 추진단 을 주요사업

콘텐츠 담은 준비관·쇼케이스 설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14일 '2010년 주요사업 발표회'를 갖고 2014년 아시아문화전당 개원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올해부터 본격 가동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아시아문화정보원의 준비관을 만들고, 전당 쇼케이스를 설치하는 등 전당이 개원할 것에 대비해 현장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주요 콘텐츠나 프로그램들을 시범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각 시설들의 협업 시스템 구축, 재원다각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추진단이 이처럼 발 빠른 행보를 보이는 배경에는 랜드마크 논란,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 논란으로 개원이 2014년까지 늦춰지면서, 싱가포르, 대만, 중국 등이 추진하고 있는 유사한 문화복합시설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당운영 시범사업 추진=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에는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아시아예술극장, 어린이지식문화원, 광장, 전시관, 공연장, 도서관 등의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 무엇을 담아내 지속가능하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있다. 추진단은 올해부터 이들 시설의 연구·교류·교육·창조·향유 등의 기능을 연계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원다각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아시아문화정보원 준비관 운영 ▲(가칭)아시아월드뮤직페스티벌 개최 ▲아시아문화전당 쇼케이스 체험공간 운영 ▲아시아예술커뮤니티 구축 및 운영 등의 시범사업을 통해 핵심 콘텐츠를 다듬게 된다. 아시아문화정보원 준비관은 동구 금남로 갤러리 D빌딩 3~4층에 들어서며 오는 10월 개관한다. 수장고, 전문가 열람실, 무료 도서관 공원(free library park), 사무공간, 교육공간 등으로 구성되며, 수집한 실물자료 2천여 점, 디지털 자료 약 2만 건을 보관하게 된다. 음악축제의 정착기간을 고려해 올해 9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이 14일 오전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추진단 광주시사무소에서 2010년 추진단의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화전당 각 시설들 협업 시스템 구축 인프라 구축 문화수도 기반조성 박차

월부터 매년 열리는 (가칭)아시아월드뮤직페스티벌은 전당 조성사업과 음악축제 연계해 활용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전당의 브랜드가치를 창출하는 데 일조하게 된다. 전당 앞 광장에는 독일의 아트홀인 플라톤 콘스트랄레(Platon Kunsthalle)를 벤치마킹한 '아시아문화전당 쇼케이스' 체험공간이 컨테이너 박스 형태로 들어선다. 이 공간에는 갤러리와 공연장, 창작체험실, 카페가 운영된다.

◇전당 운영 체계 구축=전당의 핵심시설인 5개 원은 각기 특성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상호 연계·순환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올해부

터 ▲창조원·예술극장 연계 콘텐츠 개발 시범사업 ▲복합전시관 개관준비 전시콘텐츠 개발 ▲공연기획인 국제공모 및 공동창작 시스템 구축 ▲어린이의 감성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연구 개발한 콘텐츠를 실체화하는 작업을 해나간다. 또 전당이 창작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확보 및 2차적 활용을 위한 운영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5개 원의 콘텐츠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활성화해 전당의 수입 모델을 만들어낼 예정이다. ◇문화중심도시 조성기반사업 추진=전당은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핵심 시설일 뿐

이다. 따라서 전당은 물론 광주 전반에 걸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걸맞는 문화인프라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추진단은 카탈리스트 등 문화전당 인근 역사적 건축물을 문화거점으로 리모델링하는 한편, 대인시장, 예술의 거리 등을 공방의 거리, 문화콘텐츠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구 도심지역인 문화전당권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또 전당 내 민주평화교류원과 연계한 사적경제문화교류타운을 조성, 아시아전통음악축제, 공공예술프로젝트, 야외음악당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해 사적공영 일대를 국제적인 아시아 문화예술 교류공간으로 조성한다. 옛 광주국군통합병원엔 전당의 문화창조원과 연계한 아시아예술창작교류센터로 탈바꿈한다. 추진단은 또 시민 주체·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의 문화 역량을 강화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정부는 오는 26~27일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간 실무접촉을 갖자는 북한의 제의를 검토한 뒤 이르면 15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천혜성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오늘 오후 판문점 채널을 통해 북측으로부터 관련 전문문을 접수했다"며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 후에 입장을 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접촉 제의와 관련, 일정 조율의 여지는 남겨두되 일단 수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 되나 정부, 北 실무접촉 제의 긍정 검토

앞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해 11월25일 기자회견에서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 "관광객 신변안전보장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급 회담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에서 당국자 회담 제의를 정식으로 해오면 잘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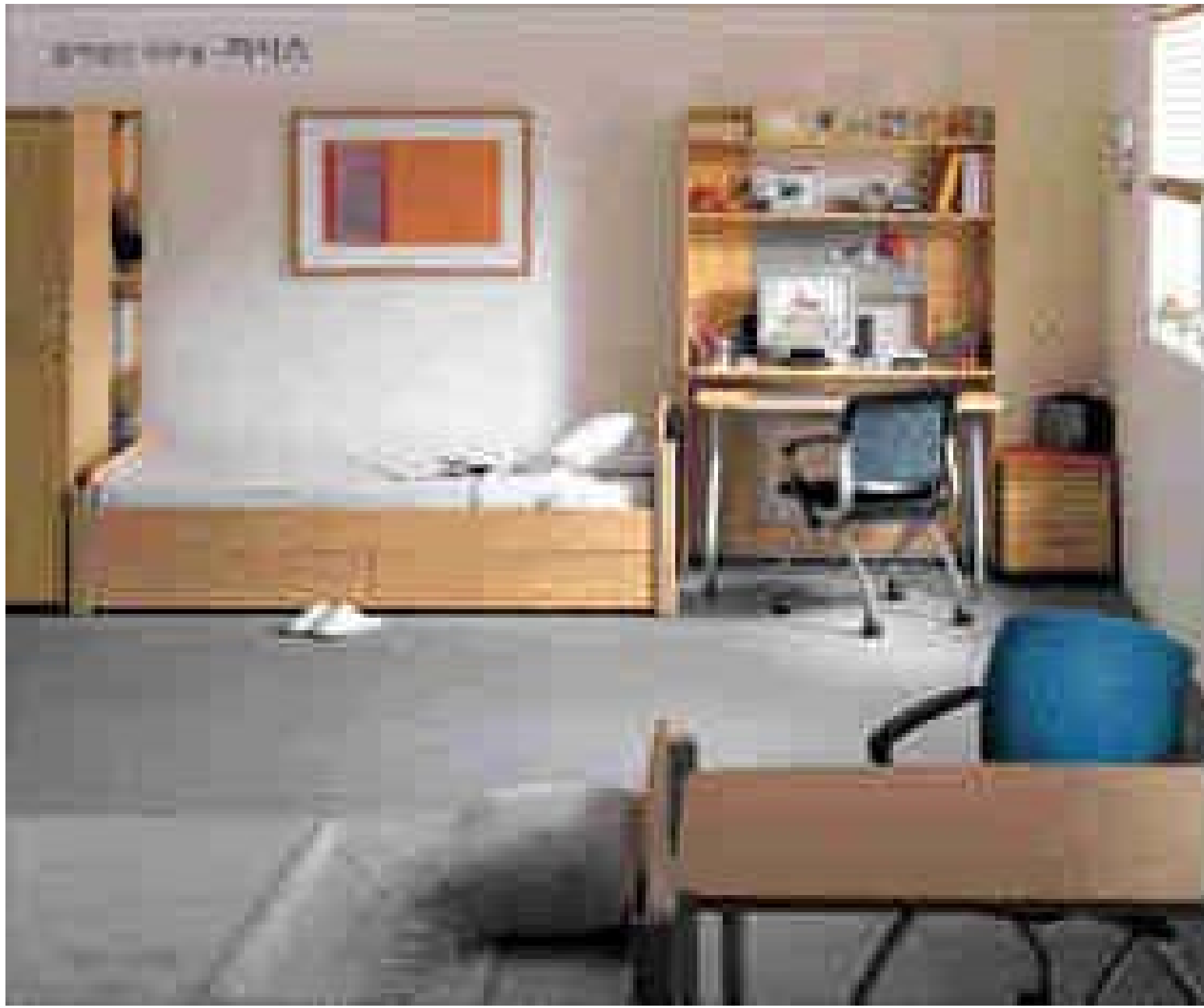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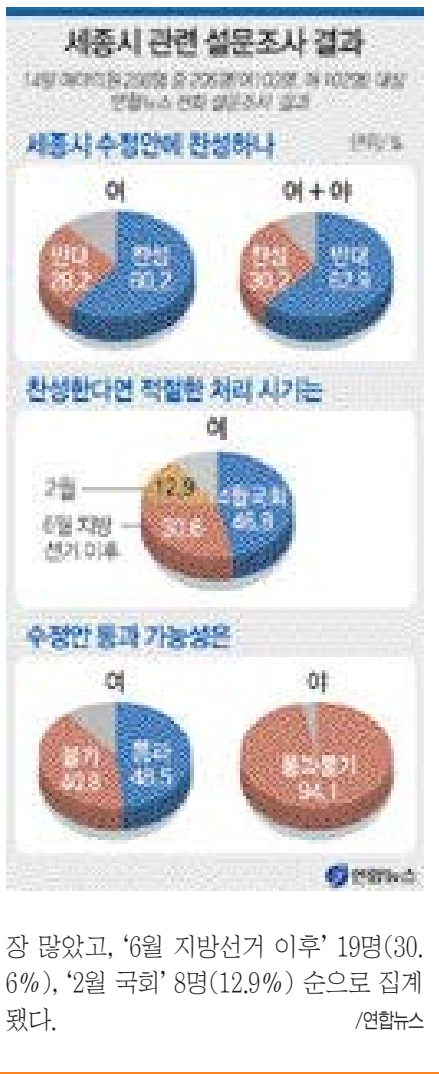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은 각각 2008년 7월과 12월 중단됐다.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이날 통일부에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을 제안했다. 북한 측은 통지문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지구관광이 1년6개월이나 중단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26일과 27일 금강산에서 관광 재개를 위한 북한 실무접촉을 갖자"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방 이전 수도권 기업 세제 감면 혜택 세종시는 10년 광주시는 7년

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은 10년 동안 세제 감면 혜택을 받지만 광주시로 이전하면 7년만 혜택을 받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을 일반지역이나 낙후지역이나에 따라 차등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를 감면해주도록 한 반면, 일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5년간 100%, 2년간 50%만 감면하도록 했다. 낙후지역의 경우만 기존 7년간 세제 감면(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에서 3년을 추가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낙후지역을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 수도권 연접 충청·강원지역 시·군(천안시, 아산시, 당진군, 원주시, 춘천시 등 10개), 인구 30만 이상 도시(청주시, 진주시, 익산시, 포항시, 구미시,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김해시, 제주시 등 10개) 등을 제외한 지역으로 규정했다. 낙후지역에 충청남도 공주시와 연기군, 청원군에 위치한 세종시가 포함될 것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이 광주로 이전하는 것보다 3년간 더 세제 감면 혜택을 보게 돼 광주시로의 기업 유치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14일 "그렇지 않아도 세종시에 대한 집중적인 특혜로 광주시로의 기업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법 시행령까지 세종시 특혜주기에 가담하고 있어 광주로 오려던 기업들이 모두 세종시로 갈 판"이라며 "낙후지역 선정 시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같은 광역시라도 다른 분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9일 공포·시행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종시 수정 찬성 한나라 의원 77% "수정안 처리 4월·지방선거 이후"

세종시 수정에 찬성하는 한나라당 의원들 중 상당수가 수정안의 국회 처리시기에 대해 '4월 국회나 6월 지방선거 이후'를 적기로 꼽아 정부의 조속한 입법예고와 해결 방침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연합뉴스는 14일 여야의원 298명 중 205명(與 103명, 野 102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찬성의견이 62명(60.1%)으로 반대 의견 29명(28.2%)을 배 이상 웃돌았다. 특히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91.0%)했으나 친박계 의원들은 답변을 유보한 3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야당 의원들 중에서는 반대 의견이 100명(98.0%)이었고, 찬성의견은 1명도 없었다. '수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 중 낙관하는 전망이 50명(48.5%)으로, 부정적 답변 42명(40.8%)보다 앞섰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 중 부정적 전망이 97명(94.2%)으로 압도적인 데다 수정안을 반대하는 친박계까지 감안할 경우 수정안의 국회 처리 요건인 과반을 차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수정에 찬성한 여당의원 62명 중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처리 시기에 대해 '4월 국회'라는 답변이 29명(46.8%)으로 가



퍼시스 소용이 광주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가격, 최고의 고객 만족을 약속합니다.

최치

FURSIS | TEERS | Room